Ⅰ.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 2016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은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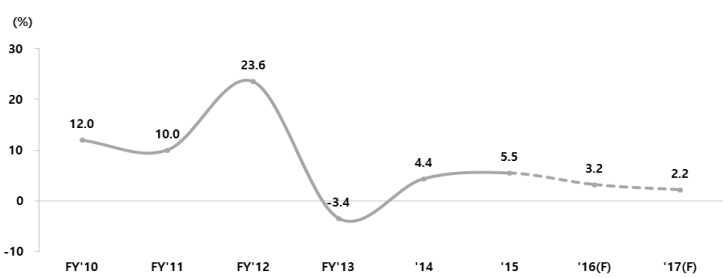
〈표 Ⅰ-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보험산업	187.2	4.4	197.5	5.5	203.7	3.2	208.2	2.2
생명보험	110.6	1.9	117.2	6.0	120.4	2.7	122.5	1.7
손해보험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Ⅰ-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성장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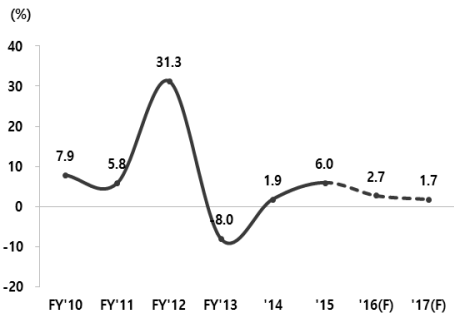
■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과 연금 부문의 역성장이 전망됨.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고 보험회사 수익성 제고가 어려워져 상품 판매 유인이 떨어짐.

■ 반면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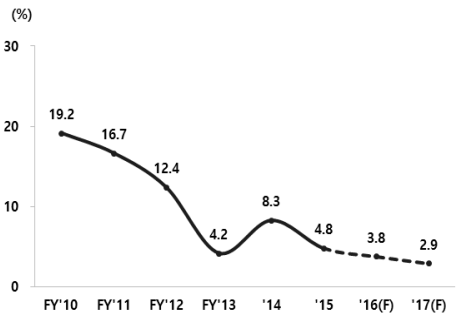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그림 Ⅰ-2〉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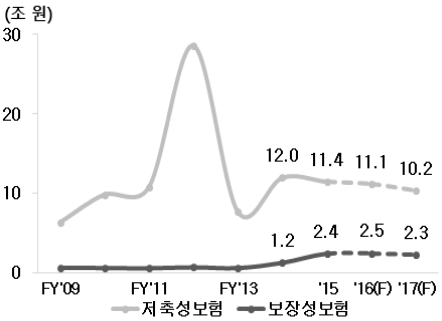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3〉 손해보험 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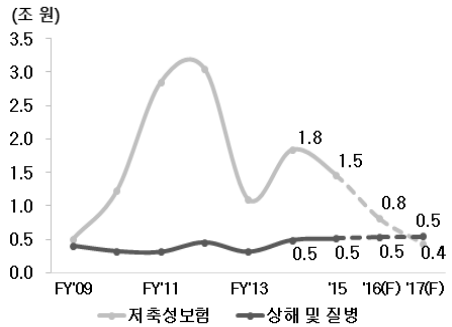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4〉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5〉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개관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은 생존보장을 강화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7.7% 증가가 예상됨.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됨.

〈표 Ⅰ-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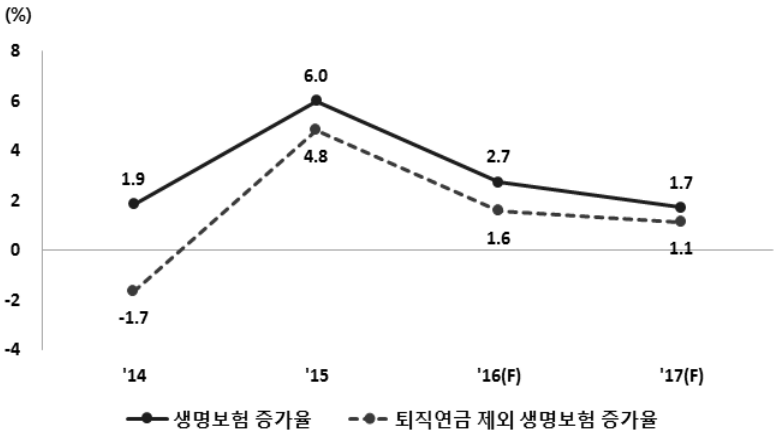
종목	2014		2015		2016(F)[1]		2017(F)[1]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05,753	1.9	1,172,137	6.0	1,204,279	2.7	1,224,952	1.7
보장성보험[2]	346,027	5.1	377,794	9.2	406,878	7.7	426,094	4.7
저축성보험[3]	633,355	-5.0	649,618	2.6	636,765	-2.0	629,303	-1.2
퇴직연금	118,221	45.4	136,990	15.9	152,929	11.6	161,806	5.8
기타[4]	8,150	-2.5	7,735	-5.1	7,707	-0.4	7,748	0.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3)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등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퇴직연금을 제외[1]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에는 1.6%, 2017년에는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6〉 생명보험(퇴직연금 제외)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2]

■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7.7% 증가가 예상됨.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데 이어, 2016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 각각 11.4%, 19.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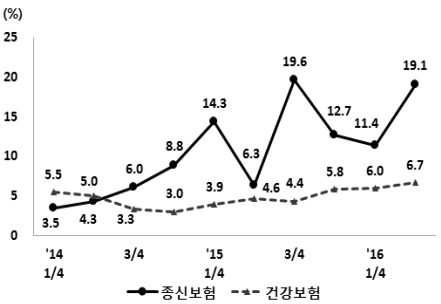
– 저금리로 연금보험의 판매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남.

1) 퇴직연금의 경우 계절 효과가 크고 각 회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전망의 불확실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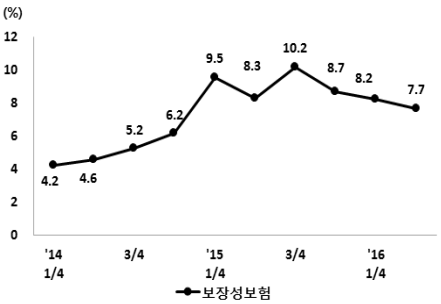
○ 건강보험[3]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 하반기 3%대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병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상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2016년 2/4분기 6.7%까지 상승함.

〈그림 Ⅰ-7〉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8〉 보장성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이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6년(7.7%)에 비해 둔화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과 중저가형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상품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예정이율 인하[4]에 따른 보장성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나, 저금리 환경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대한 영업 관행 개선 조치로 인해 그동안 호조세를 보여 왔던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신규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3) 질병 및 건강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함.

4)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은 2016년 4월과 10월 예정이율을 인하하였으며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인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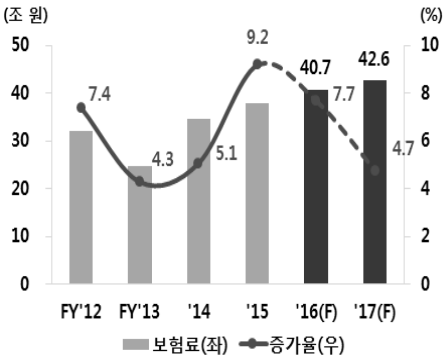
– 2017년부터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5)]

○ 건강보험의 경우 손해율 우려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고, 갱신 보험료 수입 확대와 보험료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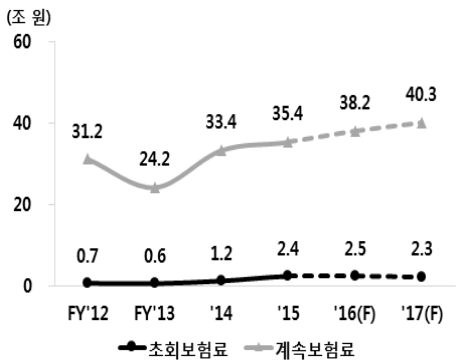
–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림 Ⅰ–9〉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10〉 초회 · 계속보험료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금감원 보도자료(2016. 9. 20) 참조.

다. 저축성보험[6)]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약화에 따른 연금보험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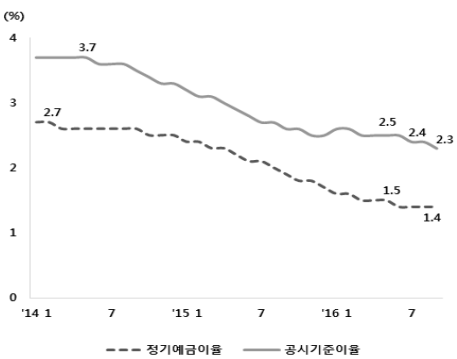
○ 생존보험[7)]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세와 금리리스크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4/4분기 이후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8)]의 경우 상반기 일부 회사의 판매 확대 전략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최저보증이율 하락과 확대 전략을 추진하던 일부 회사의 전략 수정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일부 회사가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함에 따라 단기납 상품의 신규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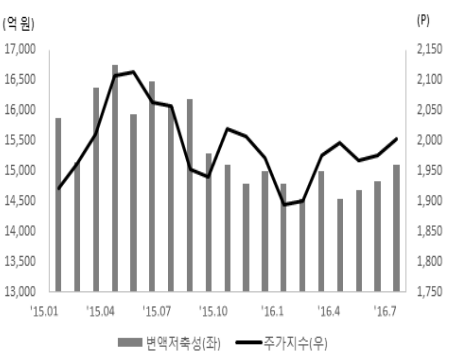
○ 변액저축성보험[9)]의 경우 변액연금 감소세와 변액유니버셜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그림 Ⅰ-11〉 정기예금 및 공시기준 이율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Ⅰ-12〉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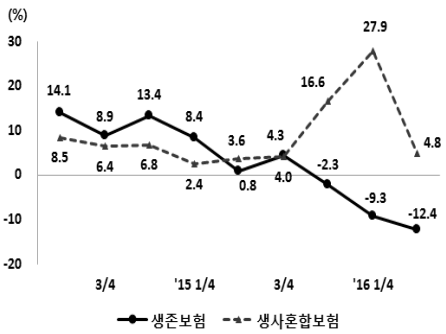
6)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7) 일반연금(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과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을 포함함.

8)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과 생존에 따른 보장을 모두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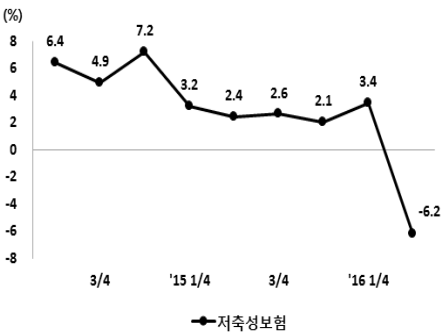
9)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그림 Ⅰ-13〉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14〉 저축성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2% 감소가 전망되며, 저금리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확대되는 등 공급측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생존보험의 경우 저축 여력 개선 여지가 크지 않고 연금보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제혜택과 관련한 특별한 제도 변화도 예상되는 바가 없어 저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발표된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대한 영업 관행 개선 조치[10]로 인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연금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고령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계속된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신규 판매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추진하였던 단기납 중심의 저축성보험 확대 전략이 자산운용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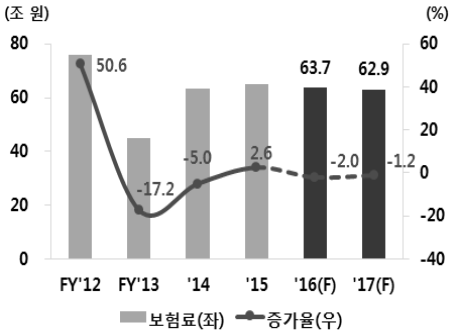
10) 금감원은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힘(금감원 보도자료 2016. 9. 20).

–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 원금 보장 시점을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납 저축성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은 확대될 것임.

○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리 위험이 큰 저축성보험 판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저축성보험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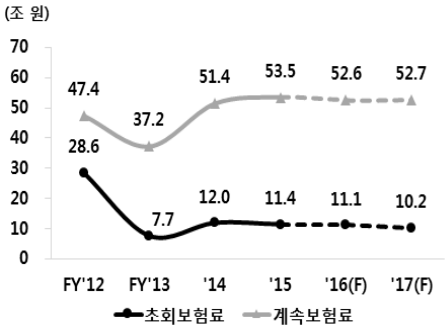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융통성 있는 자금 운용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체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15〉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16〉 초회 · 계속보험료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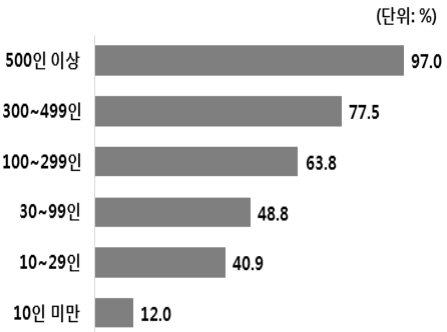
■ 2016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가 예상됨.

○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11] 비율 단계적 상향[12] 조정,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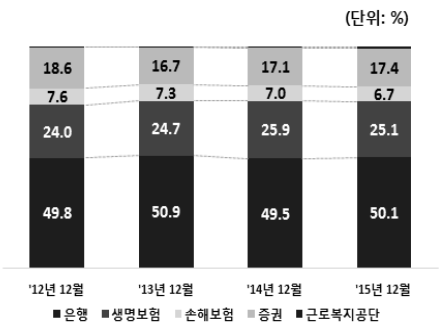
○ 그러나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등의 영향으로 신규 판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Ⅰ-17〉 사업장 규모별 가입률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Ⅰ-18〉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퇴직연금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신규 판매 확대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5.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단계적인 퇴직연금 의무 가입[13] 추진, 60세 정년제 도입[14] 추진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주요한 판매 대상인 대기업 대부분의 가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판매를 확대해야 하나 금융업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은행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 증권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큼.

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소정 비율 이상을 매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12) 최소적립비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0%에서 80%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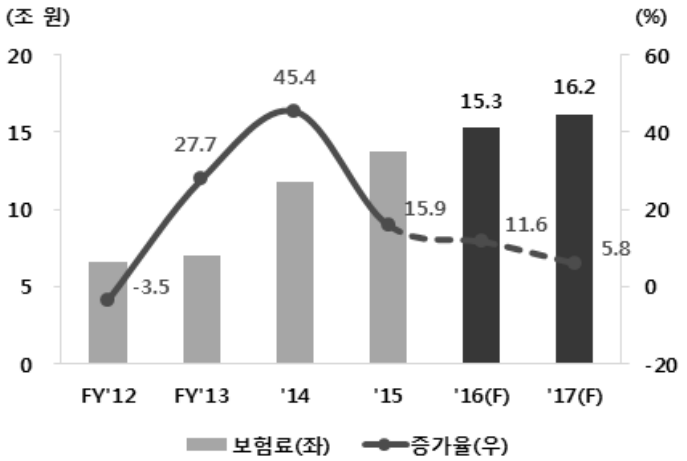
13)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음.

14)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6년부터, 그 외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으로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가 은행과 증권회사에 비하여 크지 않음.

○ 경기침체 지속 및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도 신규 수요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Ⅰ-19〉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개관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장기상해 · 질병보험의 증가세에도 불구

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위축으로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신규수요가 위축되며 성장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역성장(-1.0%)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담보 보장금액 확대 등에 따라 11.0%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 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즈 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4.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 · 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Ⅰ-3〉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연금부문	10.5	34.2	10.4	-0.9	10.3	-1.0	10.2	-1.1
자동차보험	13.6	5.2	15.0	10.7	16.6	11.0	17.4	4.8
일반손해보험	8.1	-0.3	8.3	1.8	8.5	3.0	8.9	4.2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나. 장기손해보험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2.3%p 하락한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상해 · 질병보험은 해지율 안정화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간병보험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8% 증가가 예상됨.

– 높은 가입률[15]과 예정이율 인하[16] 등으로 성장률은 체감하고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17] 성장여력 약화 등으로 전년대비 19.9% 감소가 예상됨.

–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18]로 인해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축됨.

– 또한 2015년 이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공격적 영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최근의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의 발생이 예상됨.

16)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을 말함. 보험료가 인상되면 높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신규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나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으며,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함.

17)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 6월(2.5%), 2016년 11월(2.2%).

18)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2016년 대비 소폭(0.3%p) 상승한 2.9% 증가가 전망됨.

○ 장기상해 · 질병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0.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예정이율 인하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 고령화에 따른 높은 의료수요와 가입대상 확대,[19]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니즈 변화,[20] 보험료 현실화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2.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노후 소득 보장 수요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나,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저축여력 감소, 저금리 리스크 확대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예상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 부담 및 소비자 니즈 충족 곤란[21]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22] 등의 제도 변화와 보험회사의 보장성 상품 중심 판매 정책으로 저축성보험의 매출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 판매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6.5%와 4.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19) 최근 유병자나 고연령 등 기존 거절체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 보장니즈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0) 경기침체에 따라 사망 중심의 보험에서 생존 · 건강 중심의 보험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1)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 상품을 가지고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22) 평균공시이율 기준 납입기간 완료 시점(최대 7년)에 환급률 100% 이상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함(2017년 1월 시행)에 따라 사업비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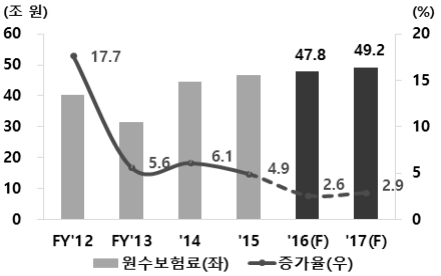
〈표 Ⅰ-4〉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상해 및 질병	21.3	14.3	24.3	14.0	27.2	11.8	29.9	10.0
저축성보험	11.8	-2.4	10.5	-11.0	8.4	-19.9	6.5	-22.5
기타	11.3	1.5	11.8	4.2	12.2	3.8	12.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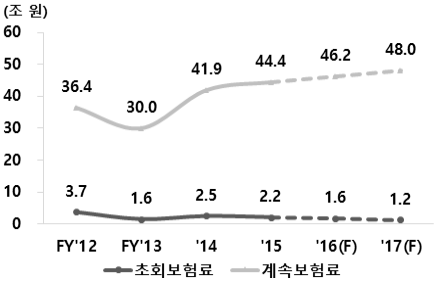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Ⅰ-20〉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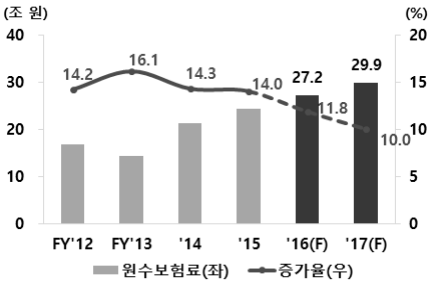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1〉 초회 · 계속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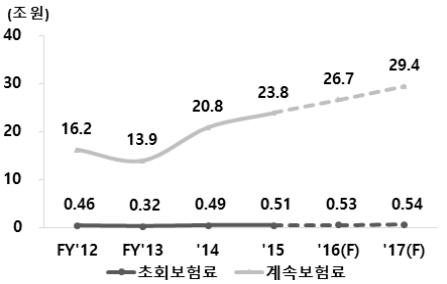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2〉 질병 및 상해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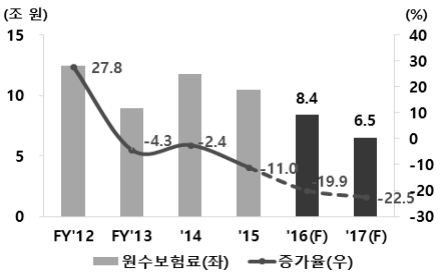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3〉 초회 · 계속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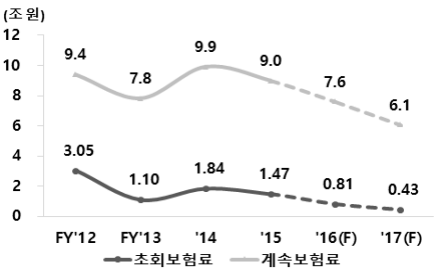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4〉 저축성보험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5〉 초회 ·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

■ 2016년 연금부문은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연금의 신규 수요 위축 및 퇴직연금의 공급측 하방압력에 따른 성장 정체로 인해 1.0% 감소가 예상되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1.1% 감소가 예상됨.

〈표 Ⅰ-5〉 연금부문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 부문	10.5	34.2	10.4	-0.9	10.3	-1.0	10.2	-1.1
개인연금	4.1	-3.2	4.0	-2.1	3.9	-2.5	3.8	-3.0
퇴직연금	6.4	78.8	6.4	-0.1	6.4	0.0	6.4	0.0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여력 약화로 2.5% 감소가 예상됨.

○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여력이 약화됨.

○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연금계좌 시행[23]으로 금융권 간 경쟁이 가열됨.

■ 2017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여력 약화로 전년대비 3.0%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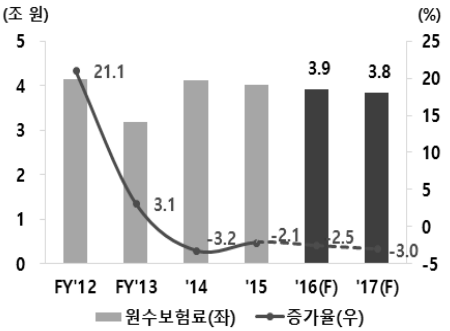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고객니즈 증가에도 불구하고,

○ 계속된 저성장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된 데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과 금융권 간 경쟁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공시이율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비자 구매 동기가 저하되어 있고, 저축성 상품 설계기준 변경(2017. 1)으로 회사의 판매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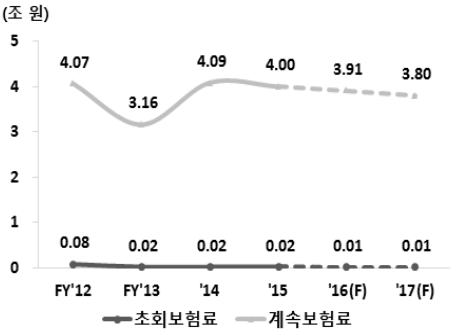
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31) 참조.

〈그림 Ⅰ-26〉 개인연금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7〉 초회 ·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 및 구조 조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부담,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노후소득에의 대비 및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임금피크제 · 성과급제 도입[24] 등으로 고성장이 예상됨.

■ 2017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또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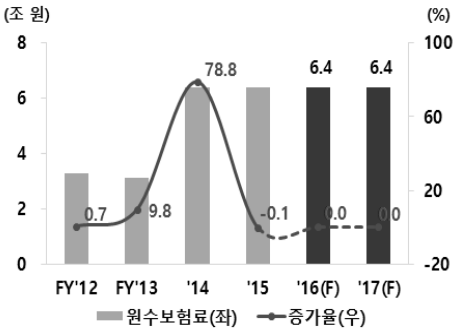
○ 은퇴시장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 · 성과급제 도입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보험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기업 퇴직연금 가입의 포화수준 도달,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신규가입 수요 부족, 은행과 증권회사의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이 퇴직연금의 성장저해요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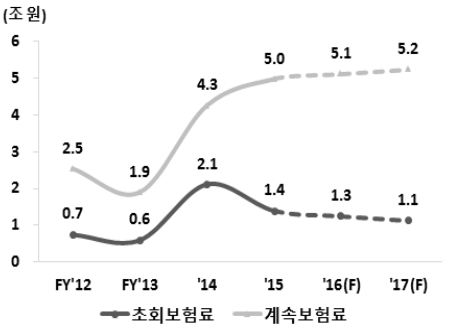
24)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도입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 예상됨.

〈그림 Ⅰ-28〉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29〉 초회 ·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25] 보험요율 인상, 물담보 보장확대수요 증가세로 인해 전년대비 11.0%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회사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 보험요율을 꾸준히 인상한 바, 기본보험료 인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4%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됨.

○ 물담보 보장확대수요 증가는 외산차 가입 증가,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 자기차량담보 가입 증가 등에 기인함.

○ 한편, 온라인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확대 등 대당 보험료의 감소 요인도 존재함.

– 특히, 2015년 말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등장으로 온라인 판매 증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25)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신차 구매 확대 등.

■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또한 차량대수 증가세,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료 증가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은 차량대수 증가 3.9%, 고액자동차 증가 0.3%, 요율 인상 효과 0.5%, 기타 0.2%로 추정됨.

○ 한편,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하 효과는 크게 감소하여 0.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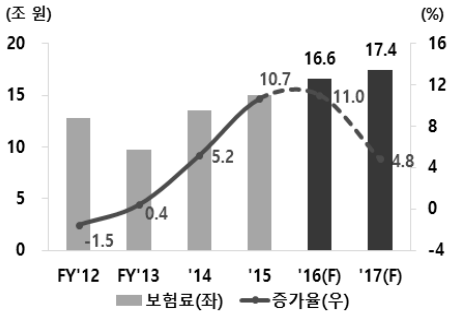
〈표 Ⅰ-6〉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3.5	5.2	15.0	10.7	16.6	11.0	17.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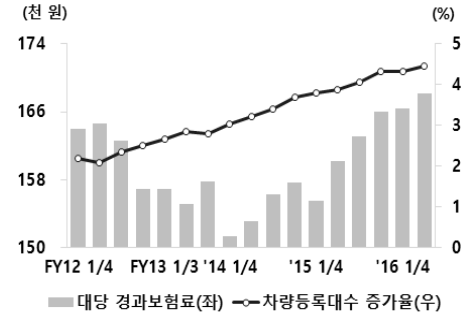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Ⅰ-30〉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31〉 차량대수 및 대당보험료 증가



자료: 보험개발원; 국토해양부.

마. 일반손해보험

■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3.0% 증가가 예상됨.

○ 화재보험은 신규수요 창출의 어려움,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장기 또는 종합보험으로의 물건 이탈[26] 등으로 1.0% 감소가 예상됨.

○ 해상보험은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조선 · 해운업 침체로 인해 14.7% 감소가 예상됨.

○ 보증보험은 국내 건설수주 호조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요 증가[27]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전년대비 0.7% 감소가 예상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의무가입 종목 증가에 힘입어 6.5%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 · 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전년에 이어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 변화[28] 등으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하, 해외로의 공장 소재 이전, 그리고 타 보험종목으로의 이탈 지속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교역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 · 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해상보험시장의 경쟁 지속, 보험요율 인하 등에 따라 17.5%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신용보험 시장 확대 및 건축허가 증가에 따른 보증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가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29]됨에 따라 1.2% 감소가 전망됨.

○ 특종보험은 특히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어 8.0% 증가가 전망됨.

---

26)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재물 및 통합형보험 등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들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이들 종목으로 분산되고 있음.

27) 파이낸셜 뉴스(2016. 3. 16), "'깡통전세 위험 줄이자' 보증보험 가입 작년比 90%↑".

28)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11. 2), "2017년 건설 ·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 배상책임보험 가입의식 변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확대,[30] 드론 등의 신시장 확대, 단체상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시장 확대 등이 증가 요인일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업성 보험 가격자유화 시행[31]으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 민간 조립 및 건설공사 감소 추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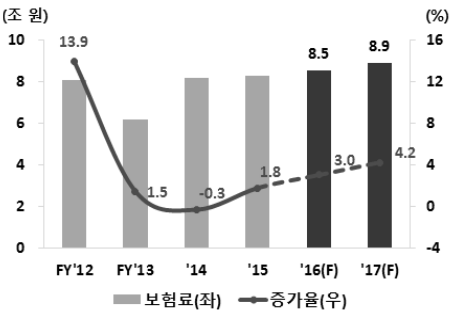
〈표 Ⅰ-7〉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1	-0.3	8.3	1.8	8.5	3.0	8.9	4.2
화재보험	0.3	-3.6	0.3	-2.1	0.3	-1.0	0.3	0.0
해상보험	0.7	-2.2	0.7	-3.4	0.6	-14.7	0.5	-17.5
보증보험	1.5	-0.6	1.6	4.4	1.6	-0.7	1.6	-1.2
특종보험	5.6	0.3	5.7	2.0	6.1	6.5	6.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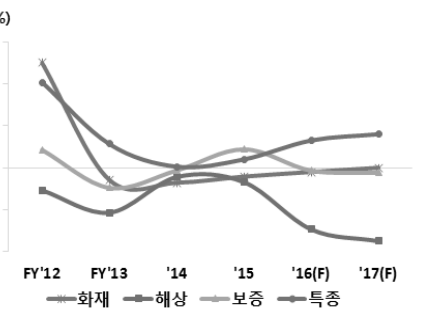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그림 Ⅰ-3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Ⅰ-3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0) 체육시설, 환경오염배상, 개인정보유출, 재난보험 등.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 7), "기업성 보험 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 경쟁 촉진".